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답변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심의 고서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원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양종 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법공양 페이지

백가지 음식 차려야 하는지

문 불교를 믿기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신도입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백종날 백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면 돌아가신 조상님께 좋은 곳에 태어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위해서 백 가지 음식을 모두 차려야 어머니가 좋아하실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뜻으로 표현하신 것인지 그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극락왕생하실 수 있으려면 백종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답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인이 두 아들을 두었는데 그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자식들을 길렀습니다. 근데 그중 한 아들이 결혼을 해서 또 두 아들을 낳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서 혼자 자식들을 기른 그 어머니가 손자를 봤으니 얼마나 손자가 귀여울 것이며, 아들들을 기르느라 얼마나 손발은 다 터지고 못쓰게 됐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홀연히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절에 나가셨는데, 절에 나가서는 부처님 전에 시주도 많이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그저 쌀 서너 되 짊어지고 올라가고, 또 무슨 음식이라도 새로 나는 거 있으면 깨끗하게 고르고 골라서 가지고 가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이런 말만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은공을 다 갚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부처님! 어머니의 은공을 꼭 갚게 해 주소서." 하고선 항상 그렇게만 하고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나무를 해서 지고 내려오다가 너무 무거워서 앉아서 쉬고 있는데 어느 스님께서 옆에 턱 앉으시면서 "더워서 식혀달라고 이렇게 앉았느냐"고 하시더라고요. "네" 하고 대답을 하니 "참, 자네는 효성이 지극한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이 모르는 것입니까?" 하고 물으니 "자네는 자네 턱 밑에, 자네를 사랑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당신 마음에 있고, 어머니의 은공을 갚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 마음에 있으니, 어머니도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이고 당신 마음도 바로 당신 마음에 있는 것이니 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마음 안으로 항상 지켜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의 마음 명경에 당신 어머니가 비칠 때에 바로 당신은 어머니의 은공을 갚을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 항상 '내 마음 안의 명경이 어디 있어서 어머니를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저 자나깨나 마음에 관했답니다. 마음의 명경이 있어서 우리 어머니를 좀 뵈게 해 주며, 은공을 갚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문득 명경이, 정말 마음의 눈이 뜨여서 보니까 어머니가 바로 자기네 집 연못에 큰 구멍이 파져서 자기들을 지켜 주고 집을 지키고 계시더라고요. 그 연못 속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습니까? 통곡을 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지도 못하신 채 여기에서 그렇게 계시다니, 우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모습을 이렇게 쓰고까지 우리를 위해서 여기에 계시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고, 통곡을 하면서 그냥 연못에 엎드려서 울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말씀이 자기 속에서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돌아와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로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기 때문에 한마음 속에 어머니도 계시고 나도 있고 모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애야, 내가 너를 봤으니 나는 인제 한이 없다. 너는 너의 두 아들을 위해서 길을 밟게 인도하기를 바란다. 네 마음 속에 명경이 있는 거를 봤으니 나는 인제 홀연히 떠나도 손색이 없으리라 믿는다. 너를 믿고 이젠 떠난다." 하면서 말이 끝나자마자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데 "뉘를 돌아다보지 마라. 너는 모습이 있는 것이요, 나는 모습을 벗는구나." 이 생사의 교차로에서 돌아다보지 마라." 하는 목소리가 그냥 요란하게 들리더라.

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보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서 엎드려서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간 곳이 없고 그렇게 요동치던 날이 환하게 밝으니 얼마나 좋았던지 그냥 춤을 추고 떠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백 가지 음식을 해 놓기 보다는, 왜 백 가지만 해 놓겠습니까? 부모의 은공이라는 것은 백 가지 해 놓고 백 가지를 다 스님들한테 해드린다고 해도 그건 부족합니다. 그렇게 한다는 건 너무 욕심이 많아선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떡을 둥글게 하나 해다 놓고, 이 속에 천 가지 만 가지, 백종이 다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돌아가신 부모나 죽은 자식이나, 스님네들이나 유생 무생이 다 먹고도 남을 떡 하나를 해다 놓는다면, 그 속에 다 들어 있으니 그 속에 먹고 싶은 게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물이 그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칠보가 가득 차 있어서, 우리의 한마음이 그쯤 된다면 어느 누구도 먹었다 더 먹었다 할 게 없이 두루두루 풍양, 내 부모 내 부모 따르 없이, 내 자식 내 자식 따르 없이 전부 공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그러니 예전에 살던 대로 여러 가지 차려놓고 그 의식을 잡아두지 말고, 칠석날에 내가 뒤아서 백종일에 넣고 광대무변한 부처님 자리에 한자리 할 수 있게끔 그 의식이 확 트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일 것입니다.

잘못을 고치게 하려면

문 스님, 저는 올해 대학에 들어와 청년회에 소속되어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 법우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관직에 있는 어떤 사람이 국민들의 재물을 약탈하

고 관직을 앞세워서 국민들을 도탄에 몰아 넣는다면, 자연환경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그걸 '아, 저렇게 보는 것도 내 탓이지.' 하고 분별하는 자기의 문제로 돌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고치게 위해 과감히 투쟁을 하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옳은 법을 지켜 가지고 사람들을 일깨워야 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때에도 놓는 마음은 가지면서 그것도 역시 자기 탓을 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지 가르침 청하옵니다.

답 공부하는 과정에서 모든 걸 놓아야 한다는 것은, 놓는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놓다보면 상대가 곧 나라는 것을, '저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 탓이지'가 아니라 '나로구나'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이지' 하는 그런 생각도 없이 그냥 '나'입니다.

진짜 놓는다는 것은 우리가 수행할 때 갖가지 오오는 것마다 모든 것을 일체로 돌리는 것입니다. 일체 내가 하는 건 다 거기서 하는 거다 할 때 일체가 놓아지는 거죠. 오오는 걸 가지고 하나하나 이거 내가 하는 거다, 주인공이 하는 거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형성시킨 것도 그놈이고, 나를 움직여주는 것도 그놈이고, 과거로부터 미래를 다 그놈이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봤을 때 비로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할 말은 하고 안 할 말은 안 하되, 유하고 너그럽고 지혜롭게 상대방의 마음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 상대의 마음을 돌림으로써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율이 100%, 즉 말하자면 10%나 20%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100%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모르고 말을 하면 내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나도 전자에 그랬지.' 이렇게 봐주는 거죠. '나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을 거쳐보니 이렇게 하는 게 어때?' 그렇게 말을 해야 그쪽에서 반감을 갖지 않으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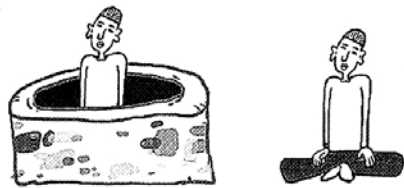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상대 탓하지 말고 내 어리석음 탓해야

죽은 세상에 들 수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 맛볼 수 있어

스스럼없이 서로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상대방의 속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을 움직여주고,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움직여지게 되자 욕심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쫓아서 말입니다. 내 마음이 그 마음과 풀이 아닌 까닭에 내 마음을 그쪽으로 풍족하게 줄 때에 바로 거기에서 그 풍족함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받

습니다. 내가 토끼가 되니까 토끼가 가다가 멈추더군요. 그리고 돌아다보고 내가 가서 만져도 가만히 있어요. 이것이 바로 원리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무조건 상대방을 맛하는 마음으로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 또한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풀아 나가 응해서 해결해야 모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

칠석날 내가 뒤아서
백종일에 한자리 할 수 있게끔
의식이 트이게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

”

았기 때문에 유순하고 너그럽게 마음을 낼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모든 문제가 순리대로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나도 돌이키게 공부를 해나갈 때 사람들을 접해가면서 많이 배웠지만, 짐승을 건지려고 할 때 내가 짐승 속으로 들어가서 짐승이 되지 않는다면 도저히 짐승들과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걸 철저하게 느낀 겁니다. 토끼가 막 뛰는데 얼마나 빠르니 몸으로 따라가면은 그거는 못 잡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끼가 된

아상을 여의려면...

문 스님, 자신의 아상을 어떻게 죽이나요. 아상을 여의고 구경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답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힘이 없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남편노릇을 하고, 아버지 노릇도 해야 되죠? 그리고 부모가 부르면 금방 자식 노릇을 하듯이, 모습은 그대로 있으면서 속에서 참나 참나 바뀌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참나 참나 바

뀌어서 돌아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서 돌아가는 그 자체를 응용하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도요, 정신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들만 중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생명체라는 것은 탄 세계에서도 살고 외계에서도 살고 있어요. 우물 안의 생명들만 생명이 아니라 탄 바다에도 생명이 있고, 탄 세계에서도 살고, 탄 외계에서도 살고 있어요. 또 지상에도 있고 지하에도 있어요. 조그맣게 보서는 안돼요.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넓혀져야 넓혀진다는 거지요. 내 몸 속에 있는 생명들과 더불어 같이 넓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 속에 있는 중생들도 제도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탄 사람한테 통신이 되고 제도가 될 수 있겠어요. 내 몸 속에 모든 생명들의 의식들이 자기 마음을 따라서 모두가 이끌어 줘야 되고 한 생각을 하면 같이 따라줘야 되는 것이 바로 조복이고, 그것을 행복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이란 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오지를 않아요. 더불어 같이 사는 한 개체가기 때문에 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 내가 너무 많아서 내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너무 많아서, 천차만별로 내가 많아서 내가 없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내 몸 안에 있는 의식들과 더불어, 생명 모습과 더불어 같이 못한다면 상대적으로 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느냐는 얘가지요. 그래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첫 번째도 죽어야 하고, 두 번째도 죽어야 하고, 세 번째도 죽어야 한다는

결론이지요. 나라는 걸 세우지 말고, 어떤 아상을 세우지 말고,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야 내 몸 속에 있는 의식들도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벌어진 거니까 잘했다는 것도 나고 못했다는 것도 나요, 욕을 먹는 것도 나요, 맞는 것도 나요. 모두가 나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서 상대방을 기억하지 말고,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을 탓하지 말고, 나의 어리석음을 탓해라. 그래야 만이 죽은 세상에 들 수 있고, 죽은 세상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맛볼 수 있다 이 겁니다. 관 속에 들어가야 관 속의 이치를 안다는 말입니다.

제행무상의 의미

문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제행무상'이란 말이 있습니다. 일체가 고정됨이 없이 참나 참나 나가고 회하여 돌아가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만 다시 한번 가르침 주시길 바랍니다.

답 어떤 분이,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의 뜻은 세상에 항상 있는 법은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부처님 법도 그렇지 않느냐고 묻는 분이 계셨는데,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다 공했기 때문에, 공한 것도 공했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붙을 자리가 없습니다. 본래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부터 알고 믿고 거기에서 나오는 거는 거기에 맡겨 놓고 내 마음을 증득해서, 즉 말하자면 정신적인 과학, 정신적인 생활, 정신적인 문화 문명이 발전이 필요해서 전체가 화합 단결해지고 또는 경제난에도 허덕이지 않을 거고, 우리 지구가 수명이 짧아도 재료를 다 끌어 잡아 당겨서 쓸 수 있는 그러한 미묘하고 광대무변한 법이, 그 능력이 누구에게나 다 주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먼저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얘깁니다.

한마음 속에서는 요 생각 조 생각, 요런 말 조런 말 다 해야 할 수도 없고 우주

법판을 다 싸안아도 안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직결되고 가설이 돼 있다고 그랬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자기 혼자 아니라 전체가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무는 공기를 저장했다가 인간에게 주고, 인간은 이산화탄소를 내놓듯이 그렇게 서로 공생·공공·공체·공식화하면서 공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하면 일체가 다 규합이 되는 때를 말합니다. 규합이 돼서 너와 내가 없이 돌아가는 것을, 즉 말하자면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더라.' 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쯤해서 주인공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풍누러 갈 때에 '똥을 뉘야 하나? 안 뉘야 하나?' 하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런 생각이 없이 똥 마려우면 그냥 변소에 가서 풍누러, 용도에 따라서 생기기 생기는 대로 거기다가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수행의 참된 길입니다. 되돌려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했던 잘했던 자기네들이 하고 있지 판사람이 해준니까? 안 그렇습니까? 못하던 잘하던 흥하던 자기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똥똥이 나는 심부름만 했지 주인이 다 한 거로구나.' 하고 거기다가 맡겨놓으십시오. 주인과 심부름꾼은 둘이 아닌 까닭에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되 맡겨놓으면 벌써 마음이 편안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유하게 돌아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그러한 여건이 실현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생활이 참선이다 하는 것은, 나오는 모든 것을 그대로 맡겨놓고 되돌려 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바로 참선이기 때문입니다. 참선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맡겨놓고 지켜보고 체험하는 것이 무르익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못났든 잘났든 자기 주인공에 모든 걸 되돌려 놓고 지켜보고, 또 잘되는 건 감사하게 돌려놓고, 안되는 게 있으면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믿음으로 되돌려 놓는 공부를 한다면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극적인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머님 병환 차도 없어...

문 저는 82세의 노모를 모시고 정성 을 다하고 있는 61세의 아들입니다. 수년 전부터 모친은 치매증상을 보이시고, 오늘도 불편한 모습을 보이시는 어머니 모습을 보며 글을 올립니다. 한마음으로 관을 열심히 하면 어머니 머리맡에 할 수 있다고 믿고 관하는 법도 알려드리고, 법문도 들려드리나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도 부지런히 마음공부하고 있는 나 부족함이 많아서 어머니의 병환은 차도가 없습니다. 스님! 어떤 방법이든 임해야 어머니의 병환에 도움이 되고 불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침 간절히 기다립니다.

답 예전에 어느 분이 5층 계단을 올라가서는 요만하면 죽는 것을 그렇게 올라올 때 애를 썼다고 하고, 또 내려와서도 요만하면 죽는 것을 내려올 때 그렇게 뒤뉘거리고 애를 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만하면 죽는 것을 가지고 그렇다 하는 것은, 힘이 없이 하는 것인데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어려워도 어렵다는 생각이 없어야 어려움이 없다는 얘깁니다.

부모를 모시는 데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병원으로 모시고 가서 돌봐드리기도 하지만, 예전처럼 집에서 즐창 모시면 아주 힘들다고 하겠지만 그냥 하루 모시고선 계단 하나 내려온다고 생각하면 모신다는 생각이 없어도 그냥 모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고 한다는 생각이 없었나 했나. 그래서 공덕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지 않는다면 통신처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공이 없습니다. 있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마음 공부를 해서 조상님 뿐만 아니라, 자손들도 고생 안 시키고 살게끔 다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네 주인공은 보디가드처럼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뭐가 안된다 할지라도 주인공에 항상 관해라.' 한다면 자손들도 알아서 공부할 테니까요.